

## 한국경제학회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 연설\*

박우희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전 세종대 총장)

1. 오늘과 내일, 56개 학회와 450명의 논문발표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제학자 모임에, “경제학의 기본원리”와 이와 연관된 ‘경제학 연구와 교육’에 관해 제 평소의 소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며 또한 감사의 마음을 지냅니다. 꼭 “여왕 폐하, 경제학은 죽었습니다”를 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로서도 1954년도 Arrow-Debreu의 논문 이후 주류경제학의 기본이 된 ‘현대 형식적 모델링기법’으로선 “연구와 교육 모든 면에서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취지로 쓴 글이 “답을 주는 경제학”이었습니다. 원래 이 책은 600쪽에 달하는 포괄적이고 방대한 것이지만, 오늘은 연구와 교육의 개혁필요성에 관한 부분만 발췌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여태껏 발표된 여러 경제원론이나 미시거시경제이론들이 ① 이미 발표된 구미경제 이론을 정리, 소개한 것이 대부분이고, ② 어느 것 하나 경제원리 즉 법칙, 이론, 모델, 개념이나 패턴, 경향, 추세, 일반화, 체계화, 단순화, 이상화, 추상화 등이 무엇인지, 나아가 전제나 가정, 변수, 방정식, 인과와 함수, 수학, 통계, 확률, 연역과 실증, 변증 등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한계점을 지니는지 등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원리와 법칙, 개념의 뿌리철학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원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자연과학철학, 사회과학철학, 경제철학(방법론 포함)을 섭렵할 때 비로소 밝혀지는 것들이며, 이들은 어떤 의미에선 종교원리를 터득할 때와 비슷한 터널을 경유할 때만 얻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도 정치원리와 사회원리를 철학. 방법론적으로 분석한 책이 국내에선 아직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F. Bacon의 말과

\* 본 원고는 2013년 2월 21일(목)~22(금)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첫날 만찬 기념연설(고려대 인촌기념관) 원고임.

같이, “철학은 다양한 꽃에서 나온 새로운 꿀과 같은 것”이 아닐런지요.

이런 내용을 언급하다 보면 용어나 설명이 난잡한데다 현학적이어서 오늘 모처럼의 만찬에 제 말씀이 혹 입맛을 잃게 하거나 앓을지 적잖이 걱정됩니다. 더욱이 급히 쓴 글이라 오자와 내용의 중복 등이 눈에 많이 띕니다. 너른 양해 바랍니다. 날씨도 아직 봄기운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2. 경제학은 경제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때의 원리란, “현실에 실재하는, 그리 쉽게 변치 않는 보편언명으로서 몇 개의 변수로 현실을 단순화 및 추상화한 말, 글 또는 방정식”을 뜻하는데, 이는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현실을 해석, 설명, 예측하려 합니다. 이런 경제원리를 철학방법론 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지금 주류경제학자들이 상용하는 ‘표준 과학적방법론’과 달리, 기존 경제학의 세계와 다른 다음 7가지 새로운 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 철학은 자연의 개념화, 사회의 개념화, 인성의 개념화를 통해 자연법칙관과 사회, 인성관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따라서 사회, 인성에 자연법칙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그래서 경제현실에 맞는 경제원리를 도저히 찾아낼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구분이 다음 논의의 바탕이 되며, 여기서는 J. S. Mill과 G. Vico의 사상과 방법론이 많이 참조된다.

2) 자연원리는 자연 내에 언제나 존재하며 불변이지만, 현대경제학이 자연내의 상대성원리나 불확실성원리를 멀리하고, 여전히 고전물리학을 고수하는 한 경제원리는 경제현실에서 발견되고, 현실이 변함에 따라 변하고 움직인다. 그 모습도 다양하며 중층적이다. 즉,

자연원리는 고정 = 불변 + 부동 = 완전 + 절대적

경제원리는 항변 = 가변 + 다양 = 불완전 + 상대적

3) 사회, 인성 특히 경제에 자연법칙관 만을 적용하면 가상(소설, 영화, 그림, 애니메이션 등)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조작, 작위, 모조를 넘어 허상을 창조 및 발명하게 된다.

4) 사회인성관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원리와 현실간의 간극이 크다. 이 간극을 수학이 아니라 통찰력, 직관, 경험 등으로 메꾸어야 한다.

5) 여러 경제원리는 ‘추상체증의 원리’에 따라 순서 매겨지며, 여기에 가정, 변수 선택, 수학, 인과, 함수 등의 문제(과정과 정도)가 내재 된다.

6) 과도하고 형식화된 현대 형식적모델링기법과 현대 계량경제모델링은 비판된다. 이들로서는 경제학 연구와 교육에서 영원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

7) 한국의 경제학 연구와 교육도 자연법칙관만을 사회, 인성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한, 크게 개혁됨이 마땅하다.

(이런 7가지 주장을 제 책에서는 장별로 상세히 논증하였음)

3. 위의 2), 3), 4)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경제원리는 언제나 현실에 내재하고 현실에서 발견된다. 만들어진 다는 것(발명, 작위)은 표준과학적방법으로 법칙적 진리(과학성)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경제현실에서는 결국 가상의 추구로 귀결 된다. 따라서 경제원리와 현실간의 본질적 간극은 더욱 확대된다.
- 2) 흔히 몇 개의 변수와 방정식화 된 수학으로 현실에 없는 가상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마치 새로 발견되거나 규범적인 것인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인간이 모방, 작위하려 드는 순간 바로 가상세계로 빠지게 된다. 즉 고도의 금융공학으로 실제 없는 파생금융상품을 끝없이 조작하다, (이것으로 1997년 R. Merton과 M. Scholes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했지만) 결국 1997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현실에 없는 모사원리로 빠져들게 된다(노벨 경제학 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인식, 이들을 비판한 P. Krugman에게 2006년에 역시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는 등 허황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모사원리를 만나면 인간은 가짜세계로 빠지는데 이것이 현존하는 여러 오류의 원인이 된다.
- 3) 경제원리의 현실 대표성과 보편성은 인간의 몇 마디 언어(글, 수식)로 표현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존재론, 우연론, 인성론, 창조론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깊은 통찰을 요구한다. 서투른 공학, 도구, 기능주의를 넘어선다
- 4) 경제현실과 원리와의 간극을 인간의 통찰력과 직관, 경험으로 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통찰력과 직관이란 불교의 선이나 천주교의 봉쇄수도원내의 관상 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수준의 지혜로움이 요구됨이 보통이다. 개념선정이나 변수선택만 해도 철학적 거장의 직관과 경험이 녹아 스며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때가 많다.

4. 위의 6), 7)을 좀 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상에 빠지게 하는 실례로는 형식적모델링기법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철학적,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닙니다.

- 1)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회를 ‘자연화’하고, 경제와 자연을 동일시한다(통일성, 환원론).
- 2) 완전 형식화를 위해 인간의 관념과 정신, 법, 제도, 관습, 문화, 역사, 도덕, 윤리, 가치관을 배제한다. 물질만 인정하는 물질주의적 일원론(유물론 보다 더 한)을 택한다.
- 3) 특히 정량적, 계측 가능한 경제변수만 택한다. 계량할 수 있는 몇 개의 변수만 자의적으로 선택, 이를 임의적으로 방정식화하고 이를 조작 가능한 방법으로 계측(Samuelson 등의 조작주의) 하는 등 연구방법의 엄밀성으로 과학화하려 한다.
- 4) 즉, 경제학의 바탕인 효용, 기대, 욕구, 믿음, 만족, 의도, 자유의지, 창의 등을 동질화, 계량화, 단조화, 대칭화, 곡률화, 블록화 또는 오목화하여 수학, 통계 사용에 편리한 용어, 개념, 변수만을 다룬다.
- 5) 변수선택과 변수 간의 관계를 양적관계=함수관계( $y=f(x)$ )로 취급하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

로 단순화하여 추시가능하다고 만족한다.

- 6) 이상과 같은 양화, 계측화, 변수선택, 조작화 모두에 인간의 판단과 주관이 개입되는데도, 나아가 이들의 객관성 여부에도 주관과 판단이 개입되는데도,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도외시한다.
- 7) 결국 현대 형식적모델링기법은 추상체증의 ‘과정’과 ‘정도’에 있어 과도한 추상화, 형식화, 수학을 지향한다. 그래서 과도한 과학주의, 도구주의, 조작주의로 편향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원리의 진리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류경제학의 수학적, 형식화의 수준이 아직 빈약하지만 수학적, 형식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경제학에 철학성과 예술성을 부인하는 주류경제학자는 거의 없고, 전제와 가정의 폭을 넓히고 분석 분야를 확대하여 변수선택을 면밀히 하고 수학적 및 통계적 기법을 더 세련화하면 어지간한 문제는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대 형식적모델링기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문제점을 지닙니다. 위와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 1) 경제현실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어떤 경제에나 같은 기법을 적용하며 너무 많은 비실제적 가정을 자의로 두고 이를 일반화하며 여기에서 과도한 수학을 추진, 모든 경제현실을 자기 기법으로 해독할 수 있다는 ‘맹목적 신봉론’(fetishism)에 매몰되어 있다.  
특히 과도한 ‘수학애호’가 문제다. 이들은 ‘수량주의’와 ‘수학주의’를 동일시하고 수학의 매력에 빠져 추상적으로 형해화하는 ‘기호경제학’이 되어 버린다. 말하자면 경험적으로 텅 빈 매력 없는 경제학으로 변질시킨다. Einstein의 말과 같이 “수학모델은 실재를 언급하는 한 확실치 않고, 그것이 확실하면 실재를 가르치지 않는다”
- 2) 원리는 발견되는 것이지 발명되는 것이 아닌데도 형식적 모델링기법은 수학을 동원하여 원리를 발명 또는 제작하려 한다. Einstein과 Hilbert의 상대성원리 발견에서 보듯이 수학은 발명하는 것이지 결코 수학으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철학적 기초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모델에는 동일한 사물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양한 여러가지 접근법이 있다. 소득과 소비 수준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식이 100개가 넘는다. 100개 이상의 관계식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조작이 과학적이라기 보다 그 반대로 임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4) 계량경제모델은 본질적인 경제운동의 카테고리들 단지 외적인 현상적인 관계를 방정식의 설정과 그것의 조작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결합은 현상주의=수학주의=원형론에 바탕하고 있다.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모델에서 설정한 경제변수간의 간명한 수학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으로도 보증되지 않는다. 원래 통계적 기법은 동일적이고 반복적인 사상 즉, 양적 측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계량주의 경제는 수학주의와 확률주의로 나

타하는데 그럴 때 확률주의는 객관적, 합법칙성을 부정하고, 허무주의(nihilism)와 불가지론(agnosticism)을 그 사상의 본질로 한다. 경제학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봉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는 비경험적인 동어반복의 체계를 분석의 도구로 하는데, 이 동어반복의 체계가 자연과학철학적 모델로, 그 하나의 변형이 계량경제학적 모델로 나타나는 것이다.

5) 무엇보다 모델과 모형이 다름을 모른다. 모델이란 주관적 사유의 구성물, 환상의 구성물, 자의의 소산물이다. 이러한 모델의 성격은 움직이는, 살아있는, 경제현실을 동태적, 적극적, 실제적,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개념인데 반해, 모형(자동차, 선박, 주택모형과 지도)은 움직이지 않는 가상현실을 절대적, 소극적, 형식적, 물리적으로 다루는 용어이다. 이러한 모델 작업에는 명료하고 창조적, 종합적 통찰력이 필요하며 여기에도 철학적 거장들의 모든 지적 성과물이 녹아들어 있다.

5. 이상 논의는 경제현실의 여건이 바뀌면 그 논리의 내용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날 산업혁명으로 3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산업경제가 21세기에 들어서는 정보사회를 넘어 스마트사회나 생명자본주의 경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태껏 상품, 자본, 노동, 토지 등이 기본단위로 설정되었으나, 지금은 지식, 정보, 통신, 생명, 나노, 환경, 문화, 관광, 디지털, 아이디어, 나아가 꿈, 시간, 공간 등도 가치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3D 프린터가 눈에 띕니다. 가히 T. Kuhn이 말한 ‘과학혁명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원리의 모습과 성격, 발견도 또 전제와 가정, 변수선택, 이들 간의 관계식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지금의 주류경제학 특히 현대 형식적 모델링기법으로서는 영원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경제학이 21세기의 창조경제에 맞추어 자연법칙관과 아울러 사회인성관을 알맞게 ‘철학화 및 이론화’할 때 비로소 경제현실에 유익한 경제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맞추어 경제학 연구와 교육도 대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원론과 미시·거시경제이론, 계량경제학 등을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경제교육으로서는 연구자나 학생들 모두 편협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이런 경제학을 배운 정책입안자들도 넓은 식견과 통찰력을 지니지 못한채 그 결과물인 경제정책도 왜곡되게 마련입니다. 이 모두 지금의 주류경제학을 개혁해야 할 당위성을 제기합니다.

지금의 경제학 교과서나 노벨경제학상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반 이상의 경제원리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며,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도 남의 모델을 빌어 변수와 방정식, 데이터만 약간 바꾸는 경향이 허다함도 이런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 모두 세계적 명문지 12개에 개재하려는 ‘publish or perish’ 정신 때문에 결과되는 ‘수리경제학화’ 및 ‘계량경제학화’의 영향, 나아가 ‘경제학 제국주의’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합리, 효율(편익/비용, 산출/투입), 조직, 제도, 생물, 심리, 사회, 문화, 종교 등 여러분야의 기존경제이론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철학, 방법론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통찰력과 직관의 인성관을 정립하고, 이로써 '경세제민'의 경제이론에 까지 승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학들의 지혜가 긴요한 소의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